

4월 칭찬합시다!

TEC사업부 한창엽, 김성태, 전우석 사원을 칭찬합니다.

신입사원들 이지만 최근 교대근무로 피곤할 법도 하나 항상 밝은 표정과 서로 도와가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임으로 주변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칭찬자 : TEC사업부 이태훈

SG사업부 김순덕 사원을 칭찬합니다.

작업지시서 관리를 위해 포장에서 작업지시서를 모아두면 품질에서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품질집으로 전화를 주면 가서 수거를 하는데 포장팀에서 일일이 고객별 작업지시서를 분류해 주시고 직접 품질집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작지만 타 부서를 신경써주시는 마음을 칭찬합니다. 포장실에서 사용하는 박스 수십종류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효율적으로 박스를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맡은 공정에 열심히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상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김종식**

SG사업부 김성정매니저를 칭찬합니다.

SG공정 불량 중 반대로 삽입해서 불량이 19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책으로 작업지시서를 발행할 때 반대로 삽입 가능성 있는 아이টে를 선정 및 작지도면에 일일이 반대로 삽입 주의 문구를 삽입하는 대책을 하면서 20년 1분기에 동링 불량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원인을 매번 정리해서 생산관리 전달하는 박휘진 주임과 작업지시서 발행시 항상 신경써주시는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김종식

SG사업부 김병춘매니저, 이성배 주임을 칭찬합니다.

공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낙엽으로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공장을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가끔씩 공장 내부외에도 공장 밖 쓰레기도 치우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김종식**

SG사업부 윤창수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장 인원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출근 후 공장 인원모두의 체온을 측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덕분에 아직까지 공장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전을 지켜주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김종식, 김성열**

SG사업부 정흥기 사원을 칭찬합니다.

원자재 컷팅 업무를 함에 중량물의 이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원블럭을 이동 및 테이블에서 셋팅시 2인 1조로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도움을 요청할 때 마다 자기일이 바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기회로 고마움을 전달해 드립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김성열

SG사업부 주홍범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아침 사상작업을 할 때 단차가 발생하여 사포로 닦아서 단차를 없애는 제품들이 몇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생산 될 때마다 사상팀들은 매번 손으로 닦아서 단차를 없애 왔습니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공장장님이 프로그램 변경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사상시간을 단축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 효율이 많이 상승 하였습니다. 현재도 수정이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박휘진

SG사업부 윤창수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코로나 19전파 방지를 위해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SG 사업부 전직원들 체온, 몸상태를 매일 체크 하신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부 방문자들까지 직접 체온 체크를 하신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박휘진**

SG사업부 이진석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코로나 19전파 방지를 위해 사무실 사무기기, 현장 손잡이, 버튼 등 손이 많이 가는 곳들을 직원들의 위생을 위해 자외선 살균 소독기로 소독을 매번 직접 하신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숨은 노력에 SG 사업부가 더욱 청결하게 전염병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박휘진**

SG사업부 고용호 파트장, 백권 사원을 칭찬합니다.

수입 소재들은 아침 일찍 입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분께서 일찍 출근하시면 지게차로 입고품을 내려주십니다. 근무 시간 전에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박우영**

SG사업부 김탁현사원을 칭찬합니다.

공장 내 생활 및 업무 시 상당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 대해서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 하면서 남들이 꺼려하고, 귀찮은 일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이번에도 집진기 폐필터를 정리 함에 있어서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분진을 몸에 다 덮어쓰면서 솔선수범하여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전달 못했던 고마움과 감사함을 이 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윤창수**

SG사업부 함영대 부파트장을 칭찬합니다.

부파트장님의 적극성을 칭찬합니다. SKC제품을 포장 할 때 사용가능한 여분의 팔레트가 없었는데 함영대 부파트장님이 자재 창고에 있는 그라파이트 블럭들을 정리하여 사용할 팔레트를 직접 구해 왔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다음에는 장갑을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자 : SG사업부 박우영

경영지원사업부 김명엽 대리를 칭찬합니다.

컴퓨터를 새로 지급받아 프로그램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자 : EC사업부 김상일

EC사업부 장명순 사원을 칭찬합니다.

검사업무와 포장업무를 하며 바쁘게 업무진행을 하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책임감과 열정적인 모습을 칭찬합니다.

칭찬자 : EC사업부 김상일

TC사업부 이준영 사원을 칭찬합니다.

항상 무거운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으면 늘 도와주는 이준영 사원을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황윤호**

구매팀 김경배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고충, 고민을 잘 들어 주시고 회사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실수를 해도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셔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칭찬자 : EHS 신종환**

4월 칭찬합시다!

TC사업부 이대연 부파트장을 칭찬합니다.

작업이 바쁘게 진행 될 때 보드 박싱 작업을 도와 주어서 고마운 마음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황윤호**

박성훈 사장님을 칭찬합니다.

마스크가 또 전직원들에게 배부가 되었네요. 이제는 마스크 구매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약국에서도 길게 줄이 늘어지지 않아도 마스크 구매는 가능한데, 이미 회사에서 마스크 지급을 받은터라 또 지급 될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 직원들을 생각해서 마스크 구매해 주신 사장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용절감을 생각한다면 일반 천마스크나 마스크 리필패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이현주**

TC사업부 구자정 매니저를 칭찬합니다.

흡연장 주변 많은 지저분한 상황을 보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발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칭찬자 : EHS 신중환**

TC사업부 이희역 사원을 칭찬합니다.

쓰레기통이 가득차면 제일 먼저 버리는 착한마음 이희역 사원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황윤호**

TC사업부 황윤호 사원을 칭찬합니다.

작업장 내에 항상 공간이 부족하여 애를 먹습니다. 황윤호 사원께서 시간을 내어 장기 재공품과 재고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셔서 넓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김수안**

TC사업부 김시현 사원을 칭찬합니다.

항상 먼저 인사해 주는 김시현 사원을 칭찬합니다. 볼 때 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동료라 있어 행복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이현주**

TC사업부 구자정 매니저, 신동환 대리를 칭찬합니다.

Module 속 Anchor를 긴급히 수정이 필요하여 구자정매니저, 신동환대리에게 요청을 하였고 신속한 대응과 직접 수정 작업을 해주셔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최재원

TC사업부 김태완, 김민재 사원을 칭찬합니다.

포스코, JNK 등에서 잦은 긴급 출고 요청에 주말도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최재원**

TC사업부 손성우 대리를 칭찬합니다.

2020년 1분기 로반 운영에 있어 영업 ORDER 집중과 CAPA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율하여 영업 일정에 큰 무리 없이 대응해 주심에 손성우 대리를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김학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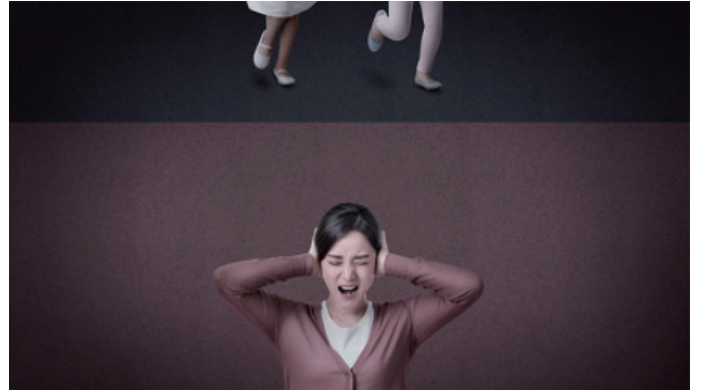
TC사업부 신동환 대리, 김만현 사원을 칭찬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PB LINE의 주문 과다로 인해 집중된 ORDER를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여 5개월여 FULL CAPA로 라인을 가동하여 영업의 요구에 대응해 준 점에 신동환 대리와 PB반 모두를 칭찬합니다. 오랜 시간 FULL CAPA 근무 & 일용직 교육 및 작업 참여로 인해 심신이 지쳤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심에 다시한번 칭찬합니다.

칭찬자 : TC사업부 김학노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분쟁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방콕'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나 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가정 보육이 늘어난 결과다. 외출 대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부작용도 생겼다. 층간소음 갈등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을 전후해 층간소음 분쟁사례 민원을 분석한 결과 7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0일 전 23일간은 543건이었지만 이후 23일간은 96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소음, 공기 전달소음'으로 규정된다. 직접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해당된다.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음향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문제는 소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소리가 소음으로 바뀔 수 있어 데시벨로 측정하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은 없다. 피아노 연주나 냉장고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그렇기 때문에 오후 8시가 지나면 이러한 소리가 나는 행위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선 직접 대면해 해결하려는 태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웃간 대면했을 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지자체에 마련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한다. 완벽한 방음이 되는 집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최선이다. 집 안에서는 의자 끄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보호 패드를 부착하고 실내화를 착용해 '쿵 쿵'거리는 발소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신규입사자

SB사업부

김 다 혜

(2020. 2. 24 입사)



SB사업부 생산관리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스 & 배드민턴 등등 운동을 좋아하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동료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셔서 빠르게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모간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라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회사의 성장과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관리사업부

박 세 나

(2020. 3. 11 입사)



경영관리사업부 회계팀 박세나 주임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팀 박세나입니다.
분위기가 명랑하고 복지도 좋은 모간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여, 모간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해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생일자

대구공장

S/B	정진혁	22 (양)
S/B	김병철	7 (양)
S/B	홍동현	22 (양)
S/B	이호연	18 (양)
S/G	고용호	2 (음)
SGL	하재철	23 (양)
EC	박진관	1 (음)
T/C	신정모	29 (양)
T/C	김학노	9 (음)
T/C	김용진	24 (음)
T/C	구자정-M	3 (양)
TEC	정성모	7 (양)

성남사무소

E/C	박재형	3 (양)
경·관	김선영	21 (음)
경·관	손미경	29 (양)

생일자 모두 축하합니다!

독서하기 "좋은 날"

오랜만에 돌아온 독서하기 좋은 날 코너입니다.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창인 요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악마와 미스 프랭]은 베스코스라는 마을에 찾아온 낯선 이방인이 마을의 바텐더 아가씨인 '미스 프랭'과 인간의 본성에 관해 내기를 하는 일주일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연금술사"로도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가 인간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집필한 3부작 소설의 첫 소설입니다. 출간된 지는 그의 유명작 만큼이나 오래 됐지만, 아무래도 대표작에 가려 크게 회자되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작가의 오랜 애정과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작가가 기대하는 인간다움이 자연스럽게 베어 나오게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허를 찌르는 듯해 작가에 대한 경외심을 선사해 줍니다. 애독가라면 3시간이면 훌훌 읽어 내려 갈 정도로 쉬운 언어로 씌어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적극 추천 드립니다.

